

〈뿔룬티어〉

축구와 기부가 만들어낸 감동의 여정

나지선 KBS 시스템구축부 팀장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뿔룬티어>는 축구를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된 특별한 콘텐츠로, 단순한 스포츠 예능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을 보여줬다. 축구 레전드 이영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뿔룬티어(Ball + Volunteer)팀은 전국의 풋살 강호들과의 경기를 통해 승리할 때마다 기부금을 적립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콘텐츠는 축구의 열정과 나눔이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결합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레전드 이영표와 별룬티어팀의 도전

2024년 10월 11일 첫 업로드를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별룬티어>는 매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평균 연령 40세 이상의 노장들로 구성된 별룬티어팀은 풋살 강호들과의 경기에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영표는 과거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는 경기 전략을 수립하고 팀원들을 독려하며 리더십을 발휘했고, 현영민, 김영광, 백지훈, 그리고 여성 국가대표 출신 전가을까지 합세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며 경기를 이끌었다. 이들은 경기의 승패를 넘어 축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다채로운 상대팀들과의 맞대결

별룬티어팀이 맞붙은 상대팀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개성을 가진 풋살 동호인 팀들로 구성되어 매 회 차마다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슛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슛돌이'팀은 체력과 열정이 넘치는 플레이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레오FC'팀은 국제적인 축구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경기를 선보였다. '경기북부소방'팀은 경기를 넘어 안전과 헌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유소년 축구팀인 '풋볼아이'팀과의 경기 또한 '별룬티어'의 백미 중 하나였다. 대한민국 축구의 과거를 상징하는 이영표와 별룬티어 멤버들이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 선수들과 맞붙은 이 경기는 흐뭇한 장면을 연출하며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별룬티어 멤버들은 어린 선수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한편, 유소년팀을 상대로 한 경기에도 최선을 다하며 세대를 뛰어넘어 축구를 통해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명승부와
극적인 순간들**

<뿔런티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경기는 풋살 강팀들과의 치열한 맞대결이었다. 뿔런티어팀은 풋살 규칙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경기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영표의 지휘 아래 후반전에는 조직력을 회복하며 역전을 노리는 경기를 펼쳤다.

김포제스트와의 경기는 대표적인 사례다. 풋살에서 강팀으로 알려진 이 팀은 젊고 체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전반전에서 뿔런티어팀은 연속으로 4골을 허용하며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이영표의 뛰어난 리더십과 팀원들의 끈질긴 경기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조직력을 발휘했다.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축구와 풋살의 차이를 넘어서는 뿔런티어팀의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풋살 강호로 알려진 아이콘 FS와의 대결이 이어졌다. 아이콘 FS는 빠른 템포와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며 뿔런티어팀에게 큰 도전이 되는 상대였다. 양 팀은 경기 내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고, 경기는 3:2로 뿔런티어팀이 아쉽게 패배했다. 그러나 양 팀이 만들어낸 수준 높은 골 장면과 화려한 기술은 축구팬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잘 모르는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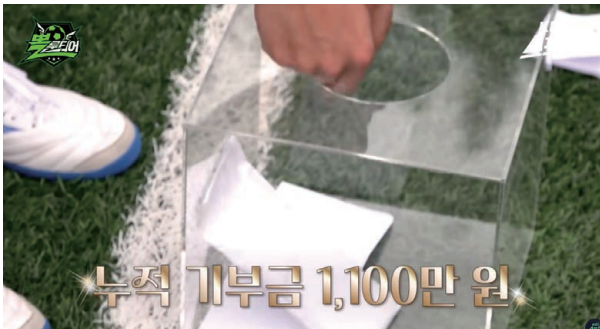
스포츠와 예능의 조화, 그리고 멤버들의 활약

별루티어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과 유쾌함으로 프로그램의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현영민은 축구와 풋살의 기술적 차이를 유쾌하게 설명하며 프로그램의 유익함을 더했고, 김영광은 특유의 재치와 넉살로 웃음을 자아내며 예능적 재미를 더했다. 그의 “골키퍼는 골을 먹어야 직업이 유지된다”는 농담은 큰 웃음을 주었다. 백지훈과 전가을은 뛰어난 기술과 안정된 플레이로 팀의 중심 역할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축구의 매력을 다시금 전했다.



축구를 통한 기부와 나눔

<별루티어>는 단순한 스포츠 콘텐츠에 머물지 않고, 축구를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10회 동안 총 1천1백만 원의 기부금을 적립해 국립암센터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했으며, 단순히 금액적 기부에 그치지 않고 축구를 매개로 한 나눔 문화의 확산이라는 큰 의미를 남겼다.



지난 12월 18일 소아암 환자들의 치료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기부금 천 백만 원을 직접 전달한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



TV로 확장되는 <별루티어>, 새로운 도전

<별루티어>는 2025년 설날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TV에 진출할 예정이다. 유튜브를 넘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축구의 즐거움과 나눔의 가치를 전달할 계획으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별루티어>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축구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전하는 감동적인 여정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사회적 기여를 이어갈 별루티어팀의 도전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